

스페인어 원어수업에서의 담화 표지 연구

심 영 식*

단독 / 선문대학교

Sim, Young-Sik(2009), El estudio sobre los marcadores discursivos utilizados por los profesores de español en la clase dictada en español para los estudiantes coreanos.

Este estudio tiene por objeto analizar el uso de los marcadores discursivos utilizados por los profesores nativos de español en las clases dictadas a los universitarios coreanos. Como datos de análisis, hemos utilizado la grabación y la transcripción de las clases de seis asignaturas de quince horas de duración. El resultado de la investigación demuestra que como estructuradores de la información los profesores nativos de español usan *bueno, bien, pues, primero/después, finalmente*; como conectores cuentan con *además, entonces, pues, ahora bien, bueno*; como reformuladores disponen de *o sea, bueno, de cualquier manera*; como operadores recurren a *de hecho, claro, la verdad, por ejemplo, bueno* y como marcadores de control de contacto utilizan la forma verbal de modo imperativo *miren, oigan, fíjense, observen* teniendo en cuenta a los estudiantes. Creemos que los estudiantes y los profesores que tienen interés en el aprendizaje y la enseñanz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deben entender el uso de estos marcadores y especialmente el papel multifuncional del marcador 'bueno' para sumergirse mejor en el mundo de español.

[**marcadores discursivos / clase de español dictada en español**
/ enseñanza de español;
담화표지 / 스페인어 원어수업 / 스페인어 교육]

* 이 논문은 200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 론

일반 담화에 있어 문장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문장을 벗어난 독립적인 요소로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또는 다음 담화의 내용을 예측하게 하는 언어 요소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그래’, ‘이제’, ‘글쎄’, ‘뭐냐하면’ ‘말이야’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고 영어에서는 ‘well’, ‘now’, ‘you know’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는 군말 또는 덧붙이는 말로 생각할 수 있으나 80년대 이후 담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담화 내에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언어요소를 통칭하여 담화 표지란 용어도 생겨나게 되었다.

스페인어에 있어서도 90년대 이후 담화표지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 동안 단순한 허사 또는 덧붙임 말로 생각해왔던 ‘bueno’, ‘pues’ 등의 담화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구체화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용어 정리 및 정의, 기능에 따른 담화표지의 분류 등 다양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고, 스페인어의 담화표지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교수자에게도 그 중요성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Catalina Fuentes(1996: 7)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Por otra parte, el extranjero que se enfrenta a nuestra lengua no dispone en la gramática de una clasificación clara de dichas unidades según los valores sintácticos y semánticos que suponen, por lo que le resulta francamente difícil llegar a hilar su discurso como lo hace un nativo. Hay que ofrecer el inventario de formas, incluidas, por supuesto, las coloquiales, muchas de ellas en proceso de gramaticalización, junto con sus intrucciones pragmáticas o de uso, para así enfrentarnos a la construcción del discurso. Es una tarea ardua, que intentaremos simplificar al máximo. De ahí la utilidad de este cuaderno para estudiantes extranjeros y profesores que enseñan español como segunda

lengua.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필요한 일련의 스페인어 담화 표지의 분류 및 설명이 필요함을 명시했고 이후,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재나 외국인 학습자 언어, 즉 중간언어의 연구에 있어서도 담화 표지의 사용에 관한 설명 및 분석이 나오게 되었다.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재에 있어서는 además, entonces, sin embargo 등의 설명과 그 연습이 실리고,¹⁾ 중간언어 연구에 있어서는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담화의 결속을 위해 필요한 대명사, 반복, 동사의 과거시제 등의 언어요소와 함께 담화 표지의 사용을 분석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요소를 습득하여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²⁾

또한, 담화 표지 사용의 이해와 적절한 사용은 일반 대화에서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언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을 적절한 담화표지의 사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할 수 있게 한다.

Los marcadores discursivos sirven para orientar el texto. Por lo tanto, crean expectativas en el receptor sobre cómo ha de continuar el mensaje en función del marcador que se emplee. Esto implica que pueden ser utilizados para paliar algunas deficiencias que pueda presentar el productor en su enunciación. Son fundamentales, en consecuencia, para desarrollar el texto y, a su vez, para reducir las dificultades que un dominio no perfecto del idioma pueda provocar (Youngsik Sim, 1999: 313).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에 있어 이러한 담화표지의

-
- 1)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재 *Ele intermedio*(2002: 25)에서는 “conectores”란 용어와 함께 그 용례가 실려 있다.
 - 2) F. Sonsoles는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을 오류분석과 함께 명시하였다. “Otro de los aspectos discursivos que presentan algunas fisuras en nuestro corpus es el uso de lo que hemos llamado conectores de discurso, enlaces y circunstantes que tienen como función marcar la secuenciación del discurso”(1997: 227).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제 담화에서의 그 직접적인 사용의 예를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과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수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분석 대상을 스페인어 원어민 교수자의 언어로 하고자 한다. 이는 스페인어 원어민 교수자가 수업시간에 사용한 담화표지가 원어 수업을 이해해야 하는 한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한국인 교수자가 원어수업을 해야 할 경우 각 상황에 적절한 담화표지 사용의 예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자료수집

필자가 속한 교육기관에서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어 학생들이 1년간 스페인어 원어민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게 되는데 수업이 한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과목도 스페인어 어휘, 문화, 회화, 작문, 문법, 강독 그리고 멕시코 문화 등 언어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는 적절한 교육상황이다. 한 주 동안에 각 과목이 두 번 이상 이루어지므로 각 과목 당 두 번 이상 녹화를 할 수 있었고 이를 문자로 기록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녹화 자료는 2007년 4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수집된 것이고 그 기간은 교수자, 학습자들의 현지 적응 정도와 언어능력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멕시코 현지에 2월 중순에 도착해 어느 정도 현지 적응을 한 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 4월이면 교수자³⁾, 학습자간의 기본적인이지만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기 기대했고 한국에서 2학년을 마치고 연수를 하는 학습자들이지만 언어 발화 및 이해능력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급수준⁴⁾의 언어능력 수준을 가진 학습자 대상의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현지 원어민 교수들은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5년 이상 경험한 경력이 있으므로 한국인 대상 스페인어 원어민 강의 녹화 자료수집에는 가장 적절하다.

4) DELE inicial 수준.

어휘, 문화, 회화, 작문, 문법, 강독 총 6과목의 수업을 5일에 걸쳐 두 번씩 녹화를 했는데 이 중 첫 날 이루어진 문법, 강독의 녹화는 음향시설의 미비로 음질이 좋지 않아 문자기록이 불가능해 문법, 강독 수업만이 한 번씩만 문자로 기록되어 자료로 사용되었고 그 문자기록은 2007년 하반기에 이루어졌다. 문자기록은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의 담화가 그 대상이므로 교수자의 담화만 문자로 기록하였다.⁵⁾

III. 스페인어 담화표지

스페인어 담화표지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는 Portolés J., Fuentes Rodríguez C., Casado Velarde M. 등이고 각각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따라 그 용어의 사용과 분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Portolés (1998)와 Fuentes Rodríguez(1996)의 용어정의와 분류를 인용하고자 하며 그것은 스페인어권에서 나온 연구에서 담화 표지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가장 포괄적이고 그 동안의 여러 연구물을 집대성한 면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모든 용어와 분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며 그 분류와 담화 표지가 중복되는 경우 특히, bueno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Portolés(1998)에서는 operador de formulación(논증강화작용어)이란 명칭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다른 담화 표지와 겹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그 기능에 따라 comentadores(도입어), digresores(탈제어), reformuladores explicativos(설명표지), reformuladores de rectificación(정정표지), reformuladores recapitulativos(요약표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본 논문의 분석자료는 2008년 《외국어 교육》 15권 1호 「스페인어 원어수업에서의 교수 담화 전략」에서 담화 전략을 17가지로 나누어 전체적인 스페인어 원어수업과 과목별 담화 전략 사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전체 발화 수와 각 교수 담화 전략의 빈도수가 과목별로 기록되어있다.

1. 담화표지의 정의

Portolés(1998)와 Fuentes Rodríguez(1996)에서는 각각 ‘marcadores del discurso’와 ‘relacionantes supraoracionale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담화표지의 정의가 더 명확하며 그 특징 설명이 일치된 면을 고려했다. 우선 담화 표지의 정의에 대해선 Portolés(1998: 2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Los marcadores del discurso son unidades lingüísticas invariables, no ejercen una función sintáctica en el marco de la predicación oracional y poseen un cometido coincidente en el discurso: el de guiar, de acuerdo con sus distintas propiedades morfosintácticas, semánticas y pragmáticas, las inferencias que se realizan en la comunicación.

담화 표지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언어 단위로서 문장 내에서 어떤 구문론적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담화 내에서 일치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담화 표지의 형태구문론적,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성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 문장 구조 내에서 어떤 요소도 수식하지 않고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

b. 전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 부각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의 담화 표지 *además*는 다른 문장의 요소처럼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Además, ese año malo ha sido el último. → **Es además que ese año malo ha sido el último*(Fuentes Rodríguez, 1996: 12).

c. 일반적으로 쉽표 사이에 위치하게 되고 문장의 요소와 관계없이 별도의 억양그룹을 형성한다.

d. 담화표지의 기능을 잃지 않고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문장의 앞이든 중간이든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다른 전치사들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Pero, de todas formas, pienso que Bach se sorprendería muchísimo de la pasión que despierta en el público(Fuentes Rodríguez, 1996: 13).

2. 담화 표지의 분류

앞서 언급한 대로 크게 다섯 가지로 Portolés(1998)의 분류를 따르되, *bueno*의 경우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 기능이 중복되는 곳에 삽입하기로 한다.

(1) *Estructuradores de la Información*(정보구조표지)

담화의 정보 구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 논증(argumentación)의 의미는 없다. 여기서 논증이란 화자가 말하는 것이 청자로 하여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로서 정보의 전체적인 구조를 편성하는 본 담화표지는 담화를 도입하거나 분리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1) *comentadores*(도입어): 앞의 담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담화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담화 표지로 *pues, bien, pues bien, bueno, así las cosas, dicho esto* 등이 포함된다.

2) *ordenadores*(정보정렬어): 정보를 분리해 나열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위치와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marcadores de apertura(시작표지): *primero, en primer lugar, primeramente, por una parte, por un lado, de una parte, de un lado, etc.*

-marcadores de continuidad(계속표지): *en segundo/tercer/.../lugar, por otra (parte), por otro (lado), por su parte, de otra (parte), de otro (lado), asimismo, igualmente, de igual forma/ modo/ manera, luego, después, etc.*

-marcadores de cierre(종결표지): *por último, en último lugar, en último término, en fin, por fin, finalmente, etc.*

3) digresores(탈제어): 전 담화와 관계없이 부차적인 코멘트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담화 표지로서 *por cierto, a todo esto, a propósito* 등이 포함된다. 어떤 일정한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예전에 말했던 것이 생각나 그것에 대해 말하던가, 아니면 청자가 알 수 있는 다른 주제가 생각나 도입할 때 사용하는 담화 표지이다.

(2) Conectores(접속어)

의미론적, 화용론적으로 담화의 한 구성요소와 전 구성요소를 연결시키는 담화 표지를 말한다. 담화 표지 자체의 의미는 관련 구성요소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추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논증방향의 지침 역할을 하며 그 의미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conectores aditivos(부가접속어): 같은 논증의 방향으로 담화의 전 구성요소에 새로운 요소가 부가되는 기능을 하며 *incluso, inclusive, además, encima, aparte* 등이 이 기능에 해당되는 담화표지이며 그 중 *además*와 *encima*는 같은 부가적인 기능이지만 그 논증의 정도가 다르다. 다음 두 담화의 예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 a. *Le he comprado un helado y, *además*, llora.
- b. Le he comprado un helado y, *encima*, llora(Portolés, 1998: 81).

일견,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같은 정도의 논증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문장이라도 *además*를 사용한 첫 번째 담화는 그 의미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담화 모두 ‘Le he comprado un helado’라는 문장에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어 아이가 만족해 있다’는 같은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는데, *además*인 경우에는 단순한 부가적 역할을 함으로서 다음에 ‘아이가 운다’라는 첫 번째 문장의 결론과 배치되는 의미의 문장이 올 수 없고 ‘un juguete’와 같은 단어 나 문장이 와서 동등한 부가적 기능만 할 수 있으며, *encima*의 경우에 있어서는 *además*의 경우보다 더 강한 추론, 즉 아이스크림을 사줌으로서 ‘당연히 아이가 만족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예상하게 함으로서 같은 부가적 기능이라도 *encima*는 기대했던 것에 반하는 결론 즉, ‘그런데도 울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부가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의 정도가 다른 담화표지의 예이다.

2) *conectores consecutivos*(결과접속어): 담화 전 구성요소의 결론을 이끄는 담화표지로서 *pues, así pues, entonces, así, por tanto(por lo tanto), en consecuencia, por consiguiente, de ahí* 등이 포함되며 *por tanto*와 *en consecuencia*의 경우에도 같은 범주의 결론을 이끄는 담화표지이지만 다음과 같이 차이가 존재한다.

- a. Se ha ido la luz. *Por tanto*, la televisión no marcha.
- b. Se ha ido la luz. *En consecuencia*, la televisión no marcha.
- c. No marcha la televisión y, *por tanto*, se ha ido la luz.
- d. *No marcha la televisión y, *en consecuencia*, se ha ido la luz(Portolés, 1998: 80).

a와 b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가 끊긴 것이 원인이 되어 TV가 나오지 않는다는 원인, 결과의 형태로 *por tanto, en consecuencia* 둘 다 가능하지만 c와 d와 같이 결과,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por tanto*만이 가능하다. *en consecuencia*의 경우에는 원인에서 결과라는 한쪽의 논증방향만 가능한 것이다.

3) *conectores contraargumentativos*(역 접속어): 담화의 두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표지로서 첫 번째 구성요소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결론을 두 번째 요소가 완화하거나 그 결론에 반하는 논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구성요소의 대조 또는 모순을 명시하는 담화표지로 *en cambio, por el contrario, al contrario*가 있고 이 중 *al contrario*만이 다음과 같이 일반 구어체 대화에서 독립적 구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ALICIA: Me han dicho que no te gustan las alcachofas.

JUAN: ¡Al contrario!

ALICIA: Entonces, te gustan las alcachofas y, *en cambio*, no te hacen gracia las judías verdes. ¡Qué extraño!(Portolés, 1998: 82).

두 번째는 담화 첫 구성요소에서 기대되었던 결론에 반하는 결론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Sin embargo, no obstante, con todo, ahora bien, ahora* 등이 대표적이며 *con todo*의 경우엔 다른 담화 표지와 그 의미가 비슷하나 앞 구성요소의 논증이 더 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a. Luisa es extremadamente trabajadora. *Con todo*, no conseguirá presentar el informe a tiempo.

b. *Luisa es algo trabajadora. *Con todo*, no conseguirá presentar el informe a tiempo(Portolés, 1998: 92).

즉, *con todo*의 경우에는 위의 예와 같이 a의 첫 문장에서 강한 논증이

이루어지거나 *con todo*를 사용하기 위해 강하거나 다수의 논증이 필요하다. b의 예에서처럼 ‘어느 정도 부지런하다’라는 약한 의미로는 *con todo*의 전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3) Reformuladores(환언표지)

앞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부연 설명하는 담화표지로 담화표지 전후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conectores*의 의미와 달리 두 번째 요소가 그 중심이 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explicativos*(설명표지):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 담화의 전 구성요소의 의미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o sea, es decir, bueno* 등이 대표적인 담화 표지이다.

2) *rectificativos*(정정표지):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된 의미를 교정하는 담화표지로 *mejor dicho, más bien, bueno* 등이 있다.

3) *de distanciamiento*(절연표지): 담화의 앞선 구성요소와 거리를 두는 역할을 하며 앞의 의미가 복잡하고 선명하지 않아 절연하고 다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담화 표지로 *en cualquier caso, de cualquier manera, de todos modos* 등이 포함된다.

4) *recapitulativos*(요약표지): 앞서 말한 바를 종합하여 그 결론을 재정립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en suma, en conclusión, en resumen, bueno* 등이 대표적인 담화표지이다.

(4) Operadores discursivos(논증강화작용어)

담화 전 구성요소의 논증을 강화시키거나 전체 담화의 논증을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말한다.

1) *de refuerzo argumentativo*(논증강화표지): 담화 표지 자체의 의미로 논증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en realidad, de hecho, claro, desde luego* 등이 있다

2) *de concreción*(예시표지): 앞서 언급된 일반화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전체적인 논증을 강화하며 *por ejemplo, en concreto, en especial, en particular* 등이 포함된다.

(5) *Marcadores de control de contacto*(담화대상표지)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 즉, 발화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며 청자에게 담화표지 이후 화자의 논리나 결론을 강화시킨다. 발화 대상이나 청자에 따라 형태론적 변화가 가능하며 호격인 *hombre, mujer*나 명령형인 *anda/ande, mira/mirad/mire/miren, oye/oíd/oiga/oigan* 등을 말한다.

IV. 원어수업에서의 담화표지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화 표지 분석 대상은 필자가 속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는 과정 초기에 수집한 자료이며 어휘, 문화, 회화, 작문, 문법, 강독 등 총 6과목의 수업을 5일에 걸쳐 녹화 했고, 그 중 녹화 첫 날의 문법, 강독 수업의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문자기록이 불가능했으므로 총 10번의 수업을 녹화, 문자로 기록한 것이 그 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담화표지 사용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 어휘 수업은 ‘어휘1’, ‘어휘2’로 문화수업은 ‘문화1’, ‘문화2’, 회화는 ‘회화1’, ‘회화2’, 작문은 ‘작문1’, ‘작문2’로 표시하고 한 번의 녹화만이 이루어진 문법, 강독의 수업은 ‘문법’, ‘강독’으로 표시하고 과목 다음은 쪽수를 표시해 그 예의 출처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각 담화표지의 사용의 예를 제시해보고 이 후 담화표지 사용빈도 수를 총괄하여 알아봄으로서 담화표지가 실제 원어수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담화표지의 사용빈도가 높은지 분

석해 보고자 한다.

(1) Estructuradores de la Información(정보구조표지)

1) comentadores(도입어): *bien, pues* 외에 *bueno*의 사용빈도가 많았으며 처음 수업의 담화를 시작하거나 앞선 담화와 구별되는 다른 주제의 설명을 시작할 때 주로 사용되었고 특히, 학생들에게 설명이 이해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이나 실제 연습이 후 그것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 빈도가 높았다.

- *Bueno*, la clase es de vocabulario y vamos a comenzar. (어휘1: 1)
- *Bueno*. fijense bien. ¿Qué vamos a hacer ahora nosotros? Vamos a practicar por teléfono. (회화1: 1)
- *Bueno*, vamos primero a revisar la tarea, ¿de acuerdo? Vamos a leer. Cada persona lee su oración... (작문1: 1)
- *Bueno*, vean su libro en la página 22. Tenemos el ejercicio 'E'. Este ejercicio lo vamos a hacer oralmente. (문법: 4)
- *Bueno*, ¿saben lo que es un poncho? ¿saben?, ¿no? Poncho. También se le llama sarape. (강독: 7)
- *Bien*. la clase de hoy, vamos a continuar un poco con emociones y sentimientos, ¿de acuerdo? Emociones y sentimientos. (어휘2: 1)
- *Bien*, esta es su calificación de cultura. La primera calificación. Vamos a tener otra calificación más adelante. (문화2: 2)
- *Bien*, en este caso, observen. Pato llamó. Yo contesté. '¡bueno!' y él habló directamente. '¿Está el maestro Sim?' (회화1: 7)
- *Bien*, la próxima semana, les voy a traer proyecto del mes de mayo para que lo empiecen a preparar. (강독: 10)
- *Pues*, porque llegó muy temprano, ¿verdad? Entonces, en México en una fiesta informal no puede llegar puntual. (문화2: 1)
- ¿Cuál fue difícil? ¿El que sigue? ¿O ambos? ¿Los dos? ¿No? ¿Ahora más fácil? *Pues*, poco a poco, ¿verdad? (문법: 1)

- *Pues*, yo digo. ‘Yo lo sé’. La información. Alguna información. La información, pero alguna parte específica de la información. (문법: 10)

*Pues*의 경우엔 결과적의미를 지닌 *conector*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고 위의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교수자 자신이 자문자답을 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도입하는 경우는 *comentador*의 예로 삼았으며 이는 앞선 담화의 결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답변의 담화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사용빈도수에 있어서는 *comentador*로서 *bueno*는 106회, *bien*은 22회, *pues*는 총 3회 사용되었다.

2) *ordenadores*(정보정렬어): 정보를 나누는 역할로 시작표지, 계속표지, 종결표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의 담화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질 수 있는 *en primer lugar/en segundo lugar/en último lugar*나 대조를 시키는 *por un lado/por otro lado, por una parte/por otra parte* 등과 같이 정보를 정렬시키는 담화표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수와 시간적 개념이 결부된 *primero/después, luego*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계속표지로는 *igualmente*, 종결표지로는 *por último, finalmente* 등이 사용되었다.

- Y *por último*, uno más. Risa. Jajaja. Sonrisa. Jajaja, risa. OK. Risa. (어휘1: 6)
- *Primero*, van a ver datos sobre el trabajo y *después*, sobre la exposición. (문화1: 2)
- *Al final*, vamos a elegir la mejor historia, ¿OK? *Al final* vamos a elegir la mejor historia. (어휘2: 3)
- Y *finalmente*, características de la civilización Azteca, de la sociedad (문화2: 4)
- *Igualmente*, aquí uso una coma para no confundir o puedo cambiar el orden de la información. (작문1: 4)

- *La primera vez van a hacer juntos y después lo hacemos individualmente.* (문법: 7)
- *Enfado, dos significados. Número uno, es igual que enojado, que enojo. También, sinónimo de aburrición. Aburrido.* (어휘1: 5)

마지막 두 가지 예는 앞서의 담화 표지와는 그 형태가 다르지만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표현 *La primera vez, Número uno* 등을 사용한 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primero/después* 의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15회), 각각 독립적으로도 여러 번 사용되었다(각각 22, 21회).

3) *digresores*(탈제어): 담화의 본 주제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주제를 말하거나 전에 말한 것으로 회귀할 때 사용되는 *por cierto, a propósito* 등은 그 예가 없고 좀 더 이해가 쉬운 *bueno*란 담화표지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Muy bien, o sea que los olmecas están consideradas como la primera civilización, gran civilización en Mesomamérica. [...] Bueno, recuerdan todos ustedes que en este lado está el Golfo de México, ¿verdad? El Golfo de México.* (문화1: 4)
- *Bueno, nosotros dijimos que el pronombre relativo ‘que’ es igual al sustantivo anterior, ¿recuerdan?* (작문2: 1)
- *Cuando no pagamos... ¡Ah! este no tiene aquí pero hay otro cable, ¿verdad? Cada línea... así. Aquí podemos ver en el micrófono otro cable. Estas líneas que transportan la comunicación o información se llaman cables. Bueno, si no pago mi teléfono, entonces, Telmex que es la compañía de teléfonos en México, la más importante, dice ¡Ah! Gaby, ¿no pague? Muy bien, vamos a cortar tu teléfono.* (회화1: 1)
- *¿Para qué va a ir al mercado Juan Bobo? ¿Para vender qué? Una gallina que está bien gorda. ¿Qué dijimos qué significa ‘bien’? Muy,*

muy gorda, que está bien gorda. ¿Ya la vieron en el dibujo? Es una gallina con esteroides. Anabólicos y todas estas para más grande. No cierto. *Bueno*, va a comprar con este dinero que reciba de la gallina una bolsa de arroz. (강독: 13)

첫 번째, 두 번째 예에서는 전 시간에 말했던 것을 다시 꺼내고자 *bueno*를 사용했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앞서 말하고자 했던 바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bueno*를 digresor로 사용한 예이다.

(2) Conectores(접속어)

1) conectores aditivos(부가접속어): 담화의 전 구성요소에 새로운 것이 부가되는 담화표지로 *además*만이 사용되었다.

- Si yo escribo aquí ‘que’, pienso ‘perdió’ y que no son iguales. *Además*, este es un verbo. (작문1: 3)
- Hay que usar la lógica y, *además*, tengo que conocer las reglas gramaticales para saber si lo que estoy diciendo es correcto o no. (문법: 1)
- Los verbos en presente y, *además*, el pronombre. (문법: 7)
- Si cambia la gallina... si no la cambia y, además, va a enfrentarse con unos ladrones. (강독: 25)

2) conectores consecutivos(결과접속어): 전 담화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담화표지로 *entonces*, *pues*, *por lo tanto*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entonces*는 200회 이상으로 그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다음은 *pues*로 13회 사용되었다.

- Tristeza permanece. Por ejemplo, ustedes sienten tristeza cuando piensan en sus papás en Corea. *Entonces*, sienten tristeza en enero, sienten tristeza en febrero, sienten tristeza en marzo. (어휘1: 2)
- Me gustaría antes de continuar que todos le diéramos un aplauso a

Nadia porque tuvo mucho esfuerzo en su trabajo y también en su exposición. *Entonces*, vamos a dar un aplauso a su compañera. (문화 1: 2)

- Es un animal muy parecido al tigre. Es un felino, como gato, ¿verdad? Pero muy grande. *Pues*, eso es un jaguar. (문화1: 7)
- Si ustedes quieren regalarle algo a su mamá mexicana, *pues*, lo mejor es regalar una flor. (문화2: 3)
- Todas estas informaciones son adjetivos que se refieren al pastel de chocolate, por *lo tanto*, también corresponden al objeto directo, ¿sí?. (문법: 4)

3) conectores contraargumentativos(역 접속어): 담화 전 구성요소의 결론을 완화시키거나 다른 결론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로 다음의 예와 같이 *ahora bien*과 *ahora*가 사용되었고 많은 경우 교수자가 설명 중 다른 예를 들거나 앞선 다른 주제를 말할 때 *ahora*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를 반대되는 논증의 예로 삼기엔 반대, 대조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Este jaguar solamente se da en el sur de México. *Ahora*, creo que actualmente está casi extinto. Ya no hay, muy poquito, tal vez. (문화 1: 7)
- Pero es verdad que puede no servir porque hubo un problema afuera. Tal vez una lluvia o un problema en el cable. Puede ser también. *Ahora bien*, si yo quiero llamar desde aquí por teléfono, realmente no puedo. (회화1: 6)
- Tarea número uno: llamar por teléfono a mi celular o a mi casa. A cada persona voy a contestar de forma diferente. *Ahora bien*, ¿ustedes ya saben qué van a hacer en las vacaciones de verano? (회화1: 18)

(3) Reformuladores(환언표지)

1) explicativos(설명표지): 다음의 예와 같이 *o sea*와 *bueno*가 담화의 전 구성요소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담화표지로 사용되었으며 *o sea*는 총 6회, *bueno*는 7회가 사용되었다.

- Está muy enamorada y ella dice que adora a Joaquín, *o sea*, lo quiere muchísimo. (어휘1: 11)
- (학생이 칠판의 문장을 읽은 후). Muy bien, *o sea* que los olmecas están consideradas como primera civilización, gran civilización en Mesoamérica. (문화1: 4)
- Muy bien, 1000 kilos es una tonelada, *o sea* que son 65000 kilos. (문화1: 7)
- Triste porque extrañas, ¿sí? *O sea*, por ejemplo, yo tengo nostalgia. (어휘2: 1)

- En la iglesia católica está infierno, *bueno*, hay un pecado y tú vas al infierno. (어휘2: 3)
- Aquí mucho tiempo no había casi de monedas. Era más común de tarjetas. *Bueno*, primero de monedas, después de tarjeta. (회화1: 2)

2) rectificativos(정정표지):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된 것을 수정하는 담화표지로 *bueno*만이 사용되었으며 아래의 예를 포함하여 10회 사용되었다.

- *O sea*, por ejemplo, yo tengo nostalgia. *Bueno*, yo no. Ustedes probablemente tienen nostalgia de Corea. (어휘2: 1)
- Si no hay cable, *bueno*, claro que hay teléfonos inalámbricos que no necesitan cable, ¿verdad? (회화1: 1)
- Es incompleta, *bueno*, es una oración completa, pero en el significado todavía necesito explicar más. (작문2: 13)

3) de distanciamiento(절연표지): 앞선 설명대로 앞의 의미가 복잡하고 선명하지 않아 절연하고 다시 설명하고자 사용하는 담화표지로 다음과 같

이 *de cualquier manera*만이 사용되었으며 앞선 설명이 이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설명으로 이해시키고자 할 때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 기능을 하고 있다.

- ¿Es claro? ¿Hasta aquí, más o menos? ¿sí? *De cualquier manera* vamos a seguir viendo más ejemplos. (작문1: 2)
- No se preocupen. *De cualquier manera*, qué bueno que entienden. (작문2: 5)
- Uso el coma. ¿Es claro? ¿Sí? *De cualquier manera* vamos a ver poco a poco. (작문2: 5)
- ¿Es claro? ¿Sí? *De cualquier manera* vamos a aprender mejor más adelante. (작문2: 7)

4) recapitulativos(요약표지): *en suma, en conclusión, en resumen*과 같이 어휘의 의미 속에 앞선 설명의 요약, 결론이 들어 있는 담화표지보다 아래의 예와 같이 *bueno*가 많이 사용되었다.

- *Bueno*, muchas gracias, muchachos. ¡Feliz fin de semana! ¡Cuidense mucho! ¡Adiós! (문화2: 4)
- *Bueno*, vamos a dejar ahí con sus preguntas. (회화2: 8)
- *Bueno*, muy bien, vamos a terminar hasta aquí. (작문1: 5)
- ¿Hay pregunta? Muy bien. *Bueno*, terminamos este ejercicio. (작문2: 18)
- *Bueno*, pues hoy con esto terminamos. (문법: 11)

(4) Operadores discursivos(논증강화작용어)

1) de refuerzo argumentativo(논증강화표지): 논증을 강화시키는 담화표지로 *claro, de hecho, en realidad, la verdad* 등이 사용되었다.

- Siento amor por los animales, *claro*, siento amor por mis papás. (어휘1: 13)

- Los olmecas construyeron en piedra varias ciudades. *De hecho*, fueron la primera civilización que empezó a construir pirámides en Mesoamérica. (문화1: 4)
- Pero la más importante de todas, se llama la Venta que está allá en Tabasco. *En realidad* está en Tabasco. (문화1: 5)
- ‘El carro muy barato que vamos a comprar era de mi tío’, ¿sí? Aunque, *la verdad*, cuando quitamos el verbo ‘ser’, normalmente no necesitamos tampoco este adverbio ‘muy’. (작문2: 15)
- Porque el significado... la situación es mala, *claro*, cuando la situación es buena sí puedo decir esto. (강독: 19)

2) de concreción(예시표지): *por ejemplo*가 대표적 담화표지로 결과 접속어(conector consecutivo)로서의 *entonces*와 새로운 담화 도입 시 사용되었던 *bueno*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담화표지이다(84회).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예를 제시한 것이다.

- Tristeza permanece. *Por ejemplo*, ustedes sienten tristeza cuando piensan en sus papás en Corea. (어휘1: 2)
- En este libro pueden ver, por ejemplo, Teotihuacán. (문화1: 6)
- Pero si tienes algún problema, por ejemplo, no tienes crédito en tu celular o tu teléfono está cortado o estás en otra ciudad y no tienes buena señal de celular. (회화1: 2)

(5) Marcadores de control de contacto(담화대상표지)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청자에게 담화표지 이후의 논리나 결론을 강화 시키는 역할로서 발화 대상이 다수인 관계로 다수 대상의 표지가 사용되었으며 일반 대화에서는 볼 수 없는 수업이라는 상황에 맞는 호격이 아닌 복수 명령형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miren, oigan, fijense, observen*), 일반 대화 상황에서의 표지의 예도 있었다(*mira, fijate, oye*).

V. 결 론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상황에서 스페인어 원어민 교수자의 담화표지의 사용을 알아본 것으로서 스페인어 원어 수업을 받는 학습자나 또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원어 수업을 하려는 교수자에게 담화표지 사용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담화를 시작하는 표지로는 *bueno, bien, pues*, 담화의 정보를 분배하는 역할은 서수와 시간적 개념이 결부된 *primero/después*, 담화의 본 주제에서 벗어나 지엽적인 주제로 넘어갈 때는 *bueno*를 사용하였다. 부가적 접속어로는 *además*, 결과 접속어로는 *entonces, pues, por lo tanto* 중 다수가 *entonces*를 사용했으며, 역 접속어로는 *ahora bien*과 *ahora*가 그 대표적 예이다. 앞서 말한 바를 부연설명하거나 정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 낼 때도 *bueno*가 대표적 담화표지였으며 논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가장 간략한 형태의 *claro, de hecho, la verdad* 등이 사용되었으며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상황에 적절한 명령형 형태 *miren, oigan, fíjense, observen* 등이 담화표지 이후의 논리나 결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어 일반 담화표지의 다양한 형태와는 달리 가장 간략하고 표지 자체의 형태가 단순한 것이 선택되어 사용되었고 특히, 담화표지 *bueno*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나 교수자가 원어수업을 이해, 지도 하기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스페인어 원어수업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원어수업에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담화표지의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으나 앞으로 초급이 아닌 중급, 고급 수준에서의 원어수업 그리고 언어기능별 수업에 따른 원어수업의 연구로 그 영역을 넓혀간다면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 교수자 모두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임규홍. 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1-20.
- Briz, A. 1994. “Hacia un análisis argumentativo de un texto coloquial. La incidencia de los conectores pragmáticos.” *Verba*, 21: 369-395.
- Borobio, Virgilio y Ramón Palencia. 2002. *Ele intermedio*. Madrid: Ediciones SM.
- Bustos Gisbert, J. 1996. *La construcción de textos en español*. Salamanca: Universidad Salamanca.
- Casado Velarde, M. 1993. *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del texto del español*. Madrid: Arco/Libros.
- Cassany, D. 1989. *Describir el escribir. Cómo se aprende a escribir*. Barcelona: Paidós Comunicación.
- Choi, Y. H. 1988. “Textual coherence in English and Korean: An analysis of argumentative writing by american and korean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Escandell, M. V. 1993. *Introducción a la pragmática*. Barcelona: Anthropos.
- Fuentes Rodríguez, C. 1996. *La sintaxis de los relacionantes supraoracionales*. Madrid: Arco/Libros.
- Fernández, Sonsoles. 1997. *Interlengua y análisis de errores*. Madrid: Edelsa.
- Grabe, W. y Kaplan, R. B. 1996. *Theory & Practice of Writing. An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Gutiérrez Ordóñez, S. 1997. *Temas, remas, focos, tópicos y comentarios*. Madrid: Arco/Libros.
- Sim, Y. S. 1999. “Cohesión, coherencia e interlengua.” Tesis doctoral. Facultad de Filologí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Portolés, J. 1998. *Marcadores del discurso*. Barcelona: Ariel.
- Reyes, G. 1990. *El abecé de la pragmática*. Madrid: Arco/Libros.

심 영 식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100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 simjh@sunmoon.ac.kr

-
- 논문접수일: 2009년 3월 30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7일
 -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27일